

[서식3]

독도동아리(팀) 활동 요약서

동아리 (팀)명	독도구리
<p>※ 독도체험(홍보) 활동의 주요 내용을 작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도 · 울릉도 안내 팸플릿 만들기(5.8~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도 · 울릉도 역사문화탐방 전 독도와 울릉도의 지리, 역사에 대해 사전 조사 각자 조사한 자료를 수합하여 후배 부원들, 인솔 선생님들, 마주치는 관광객분들께 드릴 팸플릿 제작 독도경비대원께 편지쓰기 행사(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교생을 대상으로 독도경비대원께 편지쓰기 행사 실시 우수작은 스캔하여 ‘독도게시판’에 게시하여 학교의 전체 구성원이 독도사랑의 마음을 나눔 학생들이 쓴 편지는 독도구리 부원들이 직접 독도경비대원께 전달 독도경비대원과의 인터뷰(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도경비대원과의 만남 전 미리 여쭙볼 인터뷰 질문지 작성 독도경비대원께 궁금한 점을 여쭙면서 소통의 기회를 가짐 전교생이 쓴 편지가 담긴 선물상자 전달 독도경비대원과 독도 방문객분들께 독도사랑 간식 전달(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도경비대원들이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간식을 응원메시지와 함께 소포장하여 전달 마주치는 독도 방문객분들께 나눠드리면서 독도 사랑 홍보 독도 · 울릉도의 비경을 배경으로 한 뮤직비디오 촬영 및 제작(5.31.~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나는 가요 안무를 미리 연습해서 독도와 울릉도의 비경을 배경으로 뮤직비디오 촬영 SNS에 공유함으로써 아름다운 독도 · 울릉도의 자연환경을 홍보 ‘독도를 지킨 사람들’ 선거 포스터 만들기(6.4.~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3.지방선거를 맞아 ‘독도를 지킨 사람들’의 업적을 담은 선거 벽보를 제작하여 독도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학우들에게 독도를 지킨 사람들의 업적에 대해 홍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 	

7. 독도사랑 아침 교문맞이(7.9.)

- 학생자치회와 협력하여 독도사랑 실천을 독려하는 독도사랑 아침 교문맞이를 실시함
- 독도사랑 4행시를 포스트잇에 적어 응모하면 ‘독도 지우개’를 증정. 국내 기업이 출시한 ‘독도 지우개’의 수익의 절반은 독도 수호 단체에 전달됨

8. 독도 미니축제(7.19.)

- 독도를 테마로하여 ‘독도구리’와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독도 미니축제 실시
- ‘카훗’ 앱을 활용한 독도 골든벨, 독도 관련 퀴즈 미션을 수행하는 ‘독도 런닝맨’과 같은 게임을 통해 학우들이 즐겁게 독도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목적

- 독도와 관련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우리 땅 독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올바른 국토관을 형성
- 독도 홍보 UCC, 뮤직비디오, 팸플릿 등을 제작하여 우리 땅 독도를 전교생과 교직원 더 나아가 지역 사회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함.

❖ 독도 사랑 실천을 위한 동아리 노력

- 매주 1회 독도동아리 모임을 갖고 독도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회의를 한 후 독도사랑 활동 기획
- 독도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한 안무 연습, 독도 팸플릿 제작을 위한 자료 조사, 독도경비대원께 드릴 편지 및 간식 포장 등 방과후에도 학교에 남아 독도사랑 실천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해 옴.

❖ 특색있는 독도체험 및 홍보활동 사례

- 독도·울릉도 안내 팸플릿 제작 및 배부
- 독도·울릉도 홍보 뮤직비디오 제작
- 독도 미니축제 실시

❖ 주요 성과

- 다양한 방식의 독도 사랑 활동 실천을 통하여 독도를 학생, 교직원 및 지역사회에 홍보
- 이사부, 안용복, 독도의용수비대, 독도경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독도를 지키기 위해 힘쓴 사람들의 일생과 업적을 알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함.
- ‘독도게시판’운동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스스로 제작한 독도 관련 작품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독도 살아 운동 참여 의지를 높임.

❖ 소감 및 일반화 계획

- 박하나 동아리 부장의 소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던 친구들이 진심을 담아 독도경비대원님들께 드릴 편지를 정성 담아 쓰고 색칠하는 모습과 독도 문제를 앞에 두고 풀어나가는 모습, 독도사랑 4행시 속에 깊이 있고 진심이 느껴지는 말들 하나하나가 아직도 생생하다. 독도 미니축제 첫 활동에서 안용복씨가 누구냐며 책을 뒤지며 찾던 친구들이 어느새 독도 문제를 술술 풀어나가는 독도 전문가가 된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독도를 생각하고 사랑하며 보였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작은 움직임으로 인해 다른 친구들에게서도 보일 때,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뿌듯했다.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함께 사랑해준다는 것. 그만큼 가치 있고 뿌듯한 일은 없을 테니까 말이다. 지난 100일간의 활동을 통해 독도는 우리를 모두를 이어주는 평화의 섬이라는 걸 느꼈다.

- 일반화 계획

내년에 만약 학교에서 ‘독도 체험활동’을 갈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독도경비대원께 편지와 간식을 담은 소포를 보낼 수 있다. 또한 우리가 보고 배운 독도 지식을 후배들에게 다시 가르쳐주면서 독도사랑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밖에 ‘독도사랑 교문 맞이’, ‘독도 미니축제’등은 충분히 학교의 특색 활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